내면의 마주함으로 알아차린 '마음'

한동훈 개인전 'Beyond(저편에, 너머에)'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 4월 13일~20일

지장보살도·'Beyond 시리즈' 등 30여 점
모래 등 독특한 질감에 불교적 소재 담아
혈액암 투병 시기 느낌, 새벽녘으로 표현


한동훈 作, BEYOND L-II 50.0 x 90.0 Mixed Media.


BEYOND W-III 50.0 x 90.0 Mixed Media.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그림 속에서 자신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양화과 한동훈이 4월 13일부터 20일까지(개막식 4월 13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부산시 해운대 양운로97) 2층에서 개인전 'Beyond(저편에, 너머에)'를 연다. 석탑과 풍경(風磬) 등 불교적 이미지를 한국전통미학으로 확장한 그림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Beyond(저편에, 너머에)'의 주제는 'Dawning(새벽녘)'이다. 먼저 전시 제목 'Beyond(저편에, 너머에)'는 '내면의 마주함'을 의미한다. 작가는 관람객이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자신만의 생각과 추억 등을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관람객이 작품을 보고 자신의 심상(心想)을 살피면서 스스로와 대화하길 바란다.

한 작가는 2019년 2월 혈액암 투병 후 퇴원하며 앞으로 모든 전시의 제목을 'Beyond(저편에, 너머에)'로 정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촉감 등 오감(五感)의 근원이 되는 대상과의 마주함을 넘어서서 알아차리게 되는 '마음'이 작품의 주제가 된 것이다. 혈액암이라는 병과의 싸움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느낀 마음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느낀 결과이다. 한 작가는 3년을 주기로 작품 전시를 열겠다는 각오이며 다음 전시는 'Beyond(저편에, 너머에)' 시리즈로 'Beyond of Buddha(붓다 저편에, 너머에)'를 계획 중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Dawning(새벽녘)'은 현재 작가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새벽의 고요함과 하루 시작 전에 느끼는 긴장감, 그리고 여유와 평온 등을 담았다. 작가는 "투병 이후 자신의 마음 상태가 새벽과 비슷하다"면서 "다시 출발지점에 서 있는 자신의 삶과 같다"고 말했다. 한 작가에게 투병 기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히려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어 편안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작가는 "같은 병으로 입원한 많은 환자들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것도 수차례 보았다"며 "병원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지내서 역설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정말 잘 지낸 것 같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고통 속에 나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어 여유로웠고 평온했다.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작가는 현재 투병기간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3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투병기간 동안 병마와 싸운 것 외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도 새롭게 하고 작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렸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바빴던, 유일했던 시간"이라고 설명한 한 작가는 "병원에서 지낸 그 시간과 지금 현재가 마치 새벽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한 작가가 2018년 개인전 '생각의 전환' 이후 4년 만에 여는 전시로, 투병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그린 작품 가운데 포대화상과 지장보살도, 새벽의 느낌을 담은 'Beyond 시리즈'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또한 한 작가는 2018년 병원에 입원한 후 광명진언 사경을 했다. 10만 번을 목표로 시작해 이번에 전시할 작품 중 복식(포대화상과 광명진언)과 지장보살도(광명진언)에도 사경을 녹여 담아냈다. 또 202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국전)에서 평론가상을 받은 'BEYOND 2021'도 함께 선보인다.

작품의 특징은 여러 재료를 활용해 표현한 질감이다. 한 작가는 마티엘(질감)을 위해 모래, 흙, 실 등 여러 오브제를 활용한다. 평면이었던 캔버스에 모래를 덧붙이고 흙을 바르기도 하며 새로운 입체평면을 만들어낸다. 그 위에 그림을 그려 질감을 담은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 거친 모래벽 혹은 질박한 흙이 담긴 캔버스에는 석탑과 석등, 석불, 풍경(風磬)이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작품을 하면서 색과 그림은 단순할 수 있지만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필요하다"며 "모래와 흙을 덧칠하고 입체화된 표면에 불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탄생시킨다"고 말했다.

한동훈 작가의 그림은 불교미술이지만 일반인 모두가 접하기에 거부감이 없다. '불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석탑과 석불, 연꽃 등은 종교적 색채를 넘어 한국전통문화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교와 한국전통미학의 접점을 활용해 거리감을 좁힌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며 이번 작품의 특징이다.

한동훈 작가는 불화와 선묵화 등을 그린 바 있다. 좀 더 자유롭게 불교와 전통문화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오랜 기간 방황했고 서양화가로 전향하면서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인전은 순수 전업 작가로서 9년을 돌아보는 반환점이자 2019년부터 시작한 주제 'Beyond(저편에, 너머에)'를 알리는 첫 발걸음이다.

한동훈 작가는 197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불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부탄 왕립학교 십이상도 제작에 참여(탕카), 네팔 상그릴라 사원 만다라와 국내 문화재 불화제작과 개금불사에 참여했다. 부산미술대전, 김해미술대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으며 불교미술대전에서 입상했다. 전시는 후쿠오카 기타노 갤러리 초대전(복신전), 단체전 및 그룹전 100여 회를 열었으며 부산시 북구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8년 개인전 '생각의 전환' 이후 이번 전시는 두 번째 개인전이다. 현재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북구미술회 Art Space Beyond 소속작가이며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평론가상을 비롯해 3회 입상했다. 010-2062-9908. 작품도록 : http://naver.me/5wmsZqJo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6월 18일 오후 1시 청주고인쇄博
5월 31일까지 공모, 6월 7일 발표
"〈직지〉 가치의미 널리 알리겠다"



2021년 제2회 전국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모습.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낭송대회가 열린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회장 이양우, 이하 직지나라사랑)는 6월 18일 오후 1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

직지나라사랑은 대회 개최에 앞서 5월 31일까지 참가자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직지시 낭송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참가신청서(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자유시 낭송 녹음파일(mp3, 본인 낭송 녹음, 배경음악 불가), 자유시 원문 한글파일(12포인트, 시집에서 발췌)을 이메일(juingong23@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회(043-221-3090)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한 자유시 1편 녹음파일로 예선심사를 거쳐 직지시 1편(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 카페, 주인공인성협동조합 자료실 참조)으로 본선을 치른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금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 원, 은상 2명에게는 상금 각 20만 원, 동상 3명에게는 상금 각 10만 원을 수여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상장 및 시낭송가 인증서를 수여한다. 장려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이양우 회장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의 목적은 무엇보다 〈직지〉의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고귀한 유물을 남겨주신 백운화상의 업적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직지〉는 고려시대 백운화상이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한 것으로, 과거칠불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의 조사들이 남긴 어록 중에서 참선 수행자들이 선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불교의 요체를 뽑아 엮은 것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유물임에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아직도 〈직지〉의 내용과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대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직지나라사랑이 시낭송회를 여는 이유다.

박재완 기자

